

勞 動 經 濟 論 集
 第37卷 第4號, 2014. 12, pp.143~157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비정규직 규모 산출과 최근의 변화 분석*

김 우 영**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경황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추정하고 이 기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했는지를 Oaxaca 분해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5과 2013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동자)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졌을 가능성과 기업의 고용관행도 정규직에 우호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 데 공헌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비정규직, 경황 부가조사, Oaxaca 분해

논문 접수일: 2014년 10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4년 11월 25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27일

* 초고에 대해서 건설적인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I. 서론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둔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상황도 악화되었으며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근로자 간의 임금불평등을 확대시키고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연구로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김태홍 2013; 안주엽·정성미 2012), 비정규직의 활용방식(권순식 2013), 비정규직의 상태의존성(최효미 2014), 비정규직의 교육훈련(강순희·안준기 2013) 등이 있다.

비정규직 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크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경찰 부가조사는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대표성을 가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¹⁾ 통계청이 산출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정규직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가 포함된다.²⁾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통계청에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활동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으며, 처음으로 자료를 접하는 연구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변수를 산출하는 Stata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2005년과 2013년 각각 비정규직의 결정식을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으로 추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는지를 Oaxaca 방법을 이용하여 분해,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2005년을 시작연도로 정한 것은 2005년 전후로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산업분류

1) 하지만 경찰 부가조사는 횡단면 자료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노동패널은 개인의 노동 시장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2) 이 세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시적 근로자이면서 시간제 근로자일 수 있다.

가 변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36.6%에서 2013년 32.6%로 약 4%포인트 하락했다. 따라서 이 두 연도의 비정규직 비중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 추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경찰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규모 파악

1. 자료 및 비정규직 정의

2005년과 2013년 비정규직 비중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료는 해당 연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이다. 이 조사는 고용형태와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된다. 경찰 8월 부가조사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가능하며 비정규직을 정의하기 위한 질문은 매년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부 노동계에서는 종사상 지위 분류에서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의 자기 선언적 비정규직 정의를 사용할 경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규모와 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에는 (1) 한시적 근로자, (2) 시간제 근로자, (3) 비전형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이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주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이다.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용역근로자(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특수형태근로자(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형태), 가정 내 근로자와 일일 근로자를 포함한다.³⁾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한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더미를 생성하는 Stata 프로그램을 부록에 제시한다. 사용된 원자료는 fixed format 형태이며 각 변수의 열 번호(column number)는 원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코드표에서 제시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중치(프로그램에서 fweight 변수)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중치 값 10자리 중 마지막 3자리는 소수점 이하를 표시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더미의 빈도를 구한 뒤 1,000으로 나누면 정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한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수도 마찬가지로 구해질 수 있다.

2.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

<표 1>은 2005년과 2013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과 그 구성요인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자 집단은 한시적 근로자이며, 그 다음으로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순으로 나타난다. 2005년과 2013년 사이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시근로자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005년 7%에서 2013년 10.3%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⁴⁾

비정규직 비중의 추이를 남녀로 구분해 본 것은 [그림 1]에 제시된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두 집단 모두 2005년과 2013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동기간 동안 남성의 경우 31.5%에서 26.5%로 5%포인트 감소하였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43.7%에서 40.6%로 3.1%포인트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주로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2007년 정점에 달한 뒤 금융위기 기간에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장 큰 2009년에 비정규직 비중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여성 비정규직 비중의 감소 추세를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2014)의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 자료 참조 바란다.

4) 2005년과 2013년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은 3.6%에서 5.1%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11.7%에서 1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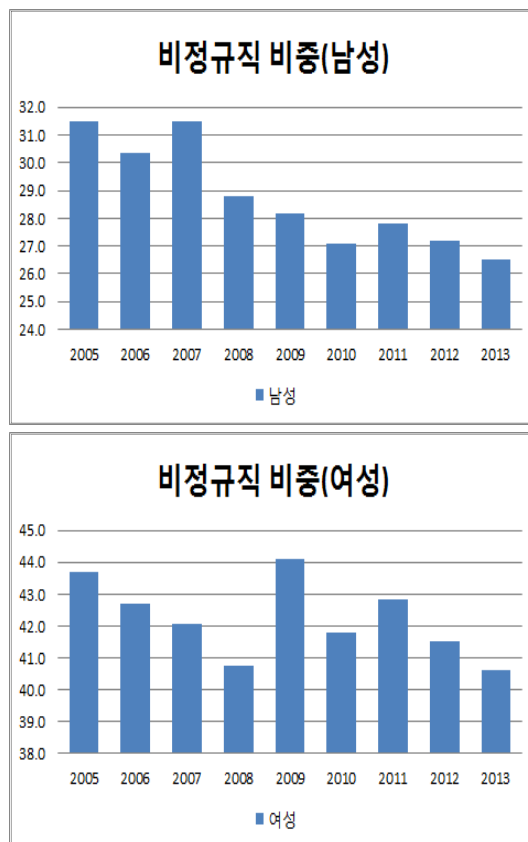
〈표 1〉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차이(2013-2005)
비정규직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4.0
한시적	24.2	23.6	22.3	20.4	21.3	19.2	19.7	19.2	18.8	-5.3
시간제	7.0	7.4	7.6	7.6	8.7	9.5	9.7	10.3	10.3	3.3
비전형	12.7	12.6	13.9	13.3	13.9	13.4	13.9	12.9	12.1	-0.6

주: 경찰 8월 부가조사 각 연도 원자료로부터 계산.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을 나타냄.

[그림 1]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 경찰 8월 부가조사 각년도 원자료로부터 계산.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은 <부표 1>에 제시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몇몇 산업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예술과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생산 등이다.

Ⅲ. 비정규직 비중 하락의 분해 결과

2005년과 2013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왜 하락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연도를 대상으로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추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Oaxaca 분해를 실시하였다.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는 <부표 2>에 제시된다. 추정결과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과 고령자일수록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정규직일 확률은 낮다. 노조원일 경우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낮은 것은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 산업인 제조업일 경우보다 다른 산업일 경우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으며, 전문직(기준 직업)보다는 서비스, 판매, 생산직의 비정규직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형확률모형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2005년과 2013년 사이 왜 비정규직이 감소하였는지를 분해하고자 한다. 분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P_{2005} - P_{2013} = \bar{X}_{2005}(\hat{\beta}_{2005} - \hat{\beta}_{2013}) + (\bar{X}_{2005} - \bar{X}_{2013})\hat{\beta}_{2013} \quad (1)$$

식 (1)에서 P_i 는 i 년도의 비정규직 비중이며, \bar{X}_i 와 $\hat{\beta}_i$ 는 각각 i 년도의 변수의 평균과 추정계수를 나타낸다. 비정규직 격차의 분해방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다.

$$P_{2005} - P_{2013} = \bar{X}_{2013}(\hat{\beta}_{2005} - \hat{\beta}_{2013}) + (\bar{X}_{2005} - \bar{X}_{2013})\hat{\beta}_{2005} \quad (2)$$

식 (1)과 (2)에서 첫 번째 항은 계수(성향)의 차이로 인한 격차, 두 번째 항은 속성의

차이로 인한 격차이다. 식 (1)과 (2)의 차이는 기준연도를 어느 것으로 삼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따르는 자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두 집단의 평균 속성과 평균 계수를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Reimers 1983; Cotton 1988 등).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 (1)과 (2)에서 다소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질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 (1)을 이용하여 비정규직의 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⁵⁾ 2005년의 비정규직 비중은 0.366이고 2013년은 0.326으로 2005년에 비해 2013년 비정규직 비중은 4%포인트 감소하였다. 이 중 평균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1.5%이고 계수의 차이로 인한 부분은 5.5%로 2013년 비정규직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속성(평균)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의 차이는 인적 특성, 산업 모두에서 음수로 나타나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전반적인 속성이 비정규직 비중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계수의 차이는 2013년에 비정규직 비중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기준범주에 있는 사람(55세 미만이면서 고졸이하 비노조원이면서 제조업에서 전문관리직으로 종사하는 남성)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비정규직 비중이 약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⁶⁾ 하지만 인적 특성이나 산업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05-2013년 사이 비정규직 규모가 4%포인트 감소한 이유는 인적 특성, 산업 및 직업 구성이 정규직에 유리하게 변해서라기보다는 동일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⁷⁾ 이러한 변화는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비정규직법은 크게 차별대우 금지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의 적용을 통하여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비용이 커지고, 계속적 사용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유경준·강창희 2013). 이러한 가능성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감소한 <표 1>의 내용과도 일관성을 가진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의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식 (2)를 근거로 한 분해 결과는 <부표 3>에 제시되는데 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6) 상수 값의 차이가 여기에 해당된다.

7) 이러한 결론은 식 (2)를 근거로 한 <부표 3>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2〉 2005-2013년 비정규직의 격차 분해 (식 1)

	2005		2013		2005	2013	계수의 차이	평균의 차이
	계수(1)	평균(2)	계수(3)	평균(4)	(1)x(2)	(3)x(4)		
여성	0.115	0.420	0.104	0.430	0.048	0.045	0.005	-0.001
55세 이상	0.048	0.103	0.106	0.165	0.005	0.017	-0.006	-0.007
고등학교	-0.049	0.379	-0.039	0.321	-0.019	-0.013	-0.004	-0.002
전문대	-0.046	0.147	-0.050	0.178	-0.007	-0.009	0.001	0.002
대학	-0.021	0.306	-0.031	0.362	-0.006	-0.011	0.003	0.002
노조원	-0.152	0.118	-0.200	0.124	-0.018	-0.025	0.006	0.001
인격 특성					0.004	0.005	0.004	-0.005
농림어업	0.303	0.011	0.213	0.008	0.003	0.002	0.001	0.001
수도, 전기, 건설	0.384	0.093	0.310	0.083	0.036	0.026	0.007	0.003
도소매	0.098	0.198	0.059	0.184	0.019	0.011	0.008	0.001
운송, 수송	0.108	0.059	0.145	0.077	0.006	0.011	-0.002	-0.003
금융, 보험	0.275	0.159	0.299	0.172	0.044	0.051	-0.004	-0.004
공공부문	0.125	0.174	0.220	0.213	0.022	0.047	-0.017	-0.009
기타 산업	0.128	0.070	0.128	0.064	0.009	0.008	0.000	0.001
산업					0.139	0.156	-0.007	-0.010
사무직	-0.030	0.203	-0.020	0.217	-0.006	-0.004	-0.002	0.000
서비스직	0.162	0.108	0.178	0.091	0.017	0.016	-0.002	0.003
판매직	0.223	0.070	0.282	0.085	0.016	0.024	-0.004	-0.004
생산숙련직	0.126	0.235	0.137	0.205	0.030	0.028	-0.003	0.004
생산비숙련직	0.338	0.149	0.350	0.157	0.050	0.055	-0.002	-0.003
직업					0.107	0.119	-0.012	0.000
상수	0.116	1	0.046	1	0.116	0.046	0.070	0.000
합계					0.366	0.326	0.055	-0.015

주: <부표 2>의 계수와 평균으로부터 계산.

IV. 결론

본 연구는 (1)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2) 2005년과 2013년 사이에 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는지를 Oaxaca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정규직 비중은 2005년 36.6%에서 2013년 32.6%로 약 4%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를 속성의 차이와 계수의 차이로 분해 본 결과, 대부분은 속성의 차이보다는 계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동일한 근로자가 2005년에 비하여 2013년에 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노조)의 정규직 선호 성향이 더 강해지고, 동시에 기업의 고용관행도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법도 비정규직 고용의 비용을 높이고 계속적 고용을 어렵게 해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는데 공헌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의 효과를 포함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 문헌

- 강순희·안준기. 「비정규직 유형별 교육훈련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효과」. 『노동경제논집』 36 (1) (2013. 4): 63-92.
- 권순식. 「비정규직 고용관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노동정책연구』 13 (2) (2013. 6): 31-66.
- 김태홍.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현황과 요인 분해」. 『여성연구』 84 (1) (2013. 6): 31-61.
- 안주엽·정성미. 『고용형태별 정규-비정규 임금격차: 업종별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2.
- 유경준·강창희. 「2007년 비정규직법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36 (2) (2013. 8): 67-94.
- 최효미.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와 상태의존성」. 『노동정책연구』 14 (1) (2014. 3): 1-33.
- 통계청.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도 자료』 (2014. 5. 22). p. 28.
- Cotton, J.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0 (2) (May 1988): 236-243.
- Reimers, C. W.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Hispanic and Black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4) (November 1983): 570-579.

[부 록]

1. 2013년 8월 경황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비정규직 생성 Stata Do 파일

```

/*****
/* This program reads in raw data of year 2013 */
/*****

infix sex 3 birthyr 4-7 edu 10 marry 17 lstat 18-19 work 20 absence 21-22 lookjob1 23 lookjob4 24 /*
    */ secjob 25 firsthr 26-28 sechr 29-31 tothour 32-34 hourtype 35 partres 36-37 emposble 41 /*
    */ str ind 73 occ 74 emstatus 76 beginyr 77-80 beginmn 81-82 contract1 83 city 92 ageman 94-96 /*
    */ fweight 97-106 lstatsum 107 conrept 108 daily 109 workcont1 110 workcont2 111 reason 115-116 /*
    */ fulltime 117 usuwkh 118-119 payplace 120 specially 122 house 123 union 144 wagetype 145 /*
    */ monwage 151-154 using K:\data\Kyoungwhal\supplement\2013sub\emtype2013_08.txt, clear

gen female= (sex==2)
gen age=2013-birthyr
gen married= (marry != 1)
gen farm= (city==1)
gen element= (edu==0 | edu==1)
gen mid= (edu==2)
gen high= (edu==3)
gen coll= (edu==4)
gen univ= (edu==5 | edu==6)
gen tenure=2013-beginyr
gen unionmen= (union==4)
gen occ_mang= (occ<3)
gen occ_cler= (occ==3)
gen occ_serv= (occ==4)
gen occ_sale= (occ==5)
gen occ_skil= (5<occ & occ<9)
gen occ_unsk= (occ==9)

gen unemploy1= (lookjob1==1 & emposble==1)
gen unemploy4= (unemploy1==1 | (lookjob4==1 & emposble==1))
gen outlf4= (lookjob4==2 | emposble==2)

```

```

gen employ4= (unemploy4==0 & outl4==0)

gen newemstatus=1 if employ4==1 & emstatus==1
replace newemstatus=2 if employ4==1 & emstatus==2
replace newemstatus=3 if employ4==1 & emstatus==3
replace newemstatus=4 if employ4==1 & emstatus==4
replace newemstatus=5 if employ4==1 & emstatus==5
replace newemstatus=6 if employ4==1 & emstatus==6

gen paid= (newemstatus==1 | newemstatus==2 | newemstatus==3)
gen self= (newemstatus==4 | newemstatus==5 | newemstatus==6)
gen employer= (newemstatus==4)
gen ownself= (newemstatus==5)
gen famwork= (newemstatus==6)

gen age55ov= (ageman>=55)

gen period= conrept != 0 /* 기간제 한시근로자 */
gen outsrc1= payplace==2 /* 파견 */
gen outsrc2= payplace==3 /* 하청 */
gen temp1= (contract1==2 & workcont2==2) /* 비기간제 한시 근로자 */
gen temp2= (contract1==2 & workcont1==2 & (1<=reason & reason<=6)) /* 비기간제 한시 근로자 */
gen parttime= fulltime==2 /* 시간제 */
gen day= daily==1 /* 일일 근로자 */
gen special= specially==1 /* 특수형태 근로자 */
gen home= house==1 /* 가정 근로자 */
gen hanshi= (period==1 | temp1==1 | temp2==1) /* 한시적 근로자 */
gen atypical= (outsrc1==1 | outsrc2==1 | day==1 | special==1 | home==1) /* 비전형근로자 */

/* 비정규직 */
gen nonregular= (period==1 | outsrc1==1 | outsrc2==1 | temp1==1 | temp2==1 | parttime==1 | day==1 | special==1
| home==1)
tab paid [weight=fweight]
tab nonregular [weight=fweight]
tab hanshi [weight=fweight]
tab parttime [weight=fweight]
tab atypical [weight=fweight]

```

〈부표 1〉 산업별 비정규직 비중의 변화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차이
농업 임업 및 어업	0.795	0.782	0.697	0.684	0.675	0.706	0.693	0.673	0.615	-0.180
광업	0.696	0.663	0.493	0.440	0.173	0.143	0.096	0.106	0.081	-0.615
제조업	0.161	0.122	0.193	0.109	0.162	0.149	0.156	0.140	0.139	-0.02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207	0.203	0.207	0.167	0.099	0.099	0.131	0.155	0.140	-0.06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0.192	0.150	0.119	0.092	0.252	0.218	0.142	0.209	0.181	-0.011
건설업	0.631	0.580	0.579	0.546	0.549	0.518	0.514	0.525	0.513	-0.118
도매 및 소매업	0.353	0.327	0.335	0.334	0.329	0.309	0.309	0.305	0.295	-0.058
운수업	0.484	0.398	0.389	0.379	0.214	0.167	0.207	0.199	0.201	-0.283
숙박 및 음식점업	0.256	0.241	0.243	0.207	0.382	0.383	0.402	0.399	0.410	0.15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0.260	0.241	0.224	0.233	0.214	0.209	0.206	0.218	0.232	-0.027
금융 및 보험업	0.464	0.515	0.506	0.446	0.438	0.407	0.416	0.400	0.396	-0.0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0.404	0.389	0.387	0.368	0.446	0.410	0.434	0.443	0.410	0.00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35	0.542	0.564	0.556	0.177	0.170	0.184	0.154	0.175	-0.36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18	0.238	0.245	0.240	0.791	0.788	0.796	0.794	0.770	0.55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369	0.363	0.343	0.334	0.445	0.336	0.291	0.291	0.287	-0.083
교육 서비스업	0.267	0.252	0.263	0.265	0.349	0.380	0.411	0.402	0.370	0.1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431	0.442	0.424	0.412	0.336	0.358	0.376	0.368	0.352	-0.07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76	0.286	0.288	0.293	0.427	0.422	0.517	0.495	0.462	0.187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0.791	0.821	0.675	0.592	0.281	0.259	0.279	0.286	0.268	-0.523
가구내 고용활동, 기타자가소비생산	0.120	0.251	0.206	0.098	0.732	0.645	0.589	0.598	0.549	0.429
전체	0.366	0.355	0.359	0.338	0.349	0.333	0.342	0.333	0.326	-0.040

* 경향 8월 부가조사 각 연도 원자료로부터 계산.

〈부표 2〉 비정규직 추정결과

	2005		2013	
	추정결과	평균	추정결과	평균
여성	0.115(0.007)**	0.420	0.104(0.007)**	0.430
55세 이상 여부	0.048(0.011)**	0.103	0.106(0.010)**	0.165
고등학교	-0.049(0.010)**	0.379	-0.039(0.010)**	0.321
전문대	-0.046(0.013)**	0.147	-0.050(0.013)**	0.178
대학	-0.021(0.012)*	0.306	-0.031(0.012)**	0.362
노조원 여부	-0.152(0.009)**	0.118	-0.200(0.007)**	0.124
농림어업	0.303(0.025)**	0.011	0.213(0.026)**	0.008
수도,전기,건설	0.384(0.012)**	0.093	0.310(0.012)**	0.083
도소매	0.098(0.011)**	0.198	0.059(0.011)**	0.184
운송, 수송	0.108(0.014)**	0.059	0.145(0.012)**	0.077
금융, 보험	0.275(0.011)**	0.159	0.299(0.010)**	0.172
공공부문	0.125(0.011)**	0.174	0.220(0.010)**	0.213
기타 산업	0.128(0.014)**	0.070	0.128(0.015)**	0.064
사무직	-0.030(0.010)**	0.203	-0.020(0.009)**	0.217
서비스직	0.162(0.014)**	0.108	0.178(0.014)**	0.091
판매직	0.223(0.016)**	0.070	0.282(0.014)**	0.085
생산-숙련직	0.126(0.012)**	0.235	0.137(0.011)**	0.205
생산-비숙련직	0.338(0.013)**	0.149	0.350(0.012)**	0.157
상수	0.116(0.015)**	1.000	0.046(0.015)**	1.000
R-squared	0.181		0.214	
표본 수	26,083		25,775	

주: 추정시 가중치를 이용하였으며 표준오차는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고려하여 구해졌음. 산업의 기준은 제조업, 직업의 기준은 전문직임. ** 95%에서 유의, * 90%에서 유의.
 자료: 경찰 8월 부가조사 원자료.

〈부표 3〉 2005-2013년 비정규직의 격차 분해 (식 2)

	2005		2013		2005		2013	
	수(1)	평균(2)	계수(3)	평균(4)	(1)x(2)	(3)x(4)	계수의 차이	평균의 차이
여성	0.115	0.420	0.104	0.430	0.048	0.045	0.005	-0.001
55세 이상	0.048	0.103	0.106	0.165	0.005	0.017	-0.010	-0.003
고등학교	-0.049	0.379	-0.039	0.321	-0.019	-0.013	-0.003	-0.003
전문대	-0.046	0.147	-0.050	0.178	-0.007	-0.009	0.001	0.001
대학	-0.021	0.306	-0.031	0.362	-0.006	-0.011	0.004	0.001
노조원여부	-0.152	0.118	-0.200	0.124	-0.018	-0.025	0.006	0.001
인적특성					0.004	0.005	0.002	-0.003
농림어업	0.303	0.011	0.213	0.008	0.003	0.002	0.001	0.001
수도전기건설	0.384	0.093	0.310	0.083	0.036	0.026	0.006	0.004
도소매	0.098	0.198	0.059	0.184	0.019	0.011	0.007	0.001
운송, 수송	0.108	0.059	0.145	0.077	0.006	0.011	-0.003	-0.002
금융, 보험	0.275	0.159	0.299	0.172	0.044	0.051	-0.004	-0.004
공공부문	0.125	0.174	0.220	0.213	0.022	0.047	-0.020	-0.005
기타 산업	0.128	0.070	0.128	0.064	0.009	0.008	0.000	0.001
산업					0.139	0.156	-0.013	-0.004
사무직	-0.030	0.203	-0.020	0.217	-0.006	-0.004	-0.002	0.000
서비스직	0.162	0.108	0.178	0.091	0.017	0.016	-0.001	0.003
판매직	0.223	0.070	0.282	0.085	0.016	0.024	-0.005	-0.003
생산숙련직	0.126	0.235	0.137	0.205	0.030	0.028	-0.002	0.004
생산비숙련직	0.338	0.149	0.350	0.157	0.050	0.055	-0.002	-0.003
직업					0.107	0.119	-0.013	0.001
상수	0.116	1	0.046	1	0.116	0.046	0.070	0.000
합계					0.366	0.326	0.046	-0.006

주: <부표 2>의 계수와 평균으로부터 계산.

abstract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and the Analysis of Its Recent Trend

Woo-Yu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it shows how to calculate the size of nonregular workers in Korea using the supplemental surveys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 Second, it decomposes the differenc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between 2005 and 2013 by a Oaxaca-type method.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ces in coefficients rather than th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are mainly responsible for the declin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This implies that a worker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is more likely to be a regular worker in 2013 than in 2005. This tendency may come from the changes in workers's as well as firms' employment practices. Also, it is suspected that the Nonregular Worker Act enacted in 2007 may have contributed to the decrease in the share of nonregular workers.

Keywords: nonregular workers,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axaca decomposition